

“누르면 침이 나오는 실리콘 안전 압정 개발”

무게중심 역이용, 실리콘으로 감싼 바늘이 항상 아래를 향해 찔리지 않아

기존 압정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무게중심을 이용한 실리콘 안전압정’으로 이동은 (낙생고 2년)군이 이번 21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에서 WIPO사무총장상을 수상했다.

실리콘 안전압정은 유치원, 학교, 사무실 등에서 게시물을 부착할 때 압정을 이용하다가 실수로 찔리거나, 바닥에 떨어져 있는 압정에 찔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위험성을 줄인 안전 사무용품이다.

즉 이 발명품은 압정바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바늘 주위에 실리콘을 부착하고, 무게중심이 바늘 쪽으로 향하게 장치되어 있다.

이군은 “학급 환경부장을 하던 중 게시물을 부착하기 위해 압정을 사용하다 손과 발에 찔리게 되면서 압정에는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군은 “기존의 압정은 바닥에 떨어질 경우 누름 판의 무게 때문에 바늘이 위를 향해 잘못하면 찔리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기존 압정의 무게 중심을 역이용해 누름판 반대 방향으로 무게 중심을 두고, 항상 노출되어 있는 바늘 주위를 탄성력이 있는 실리콘으로 감싸 사용 시에만 바늘이 튀어나올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 발명품은 압정을 사용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리더라도 찔려 다칠 위험성을 제거함으로써 특히 어린이 보육시설이나 가정 등 어린이의 안전이 요구되는 장소에서 기존 압정의 대체품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군은 “안전압정이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아 기존 압정의 위험성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던 사람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동은
경기 낙생고 2년

